

내년 국가예산 확보 '사활' "도시활력·생활환경 개선 기대"

정현을 익산시장, 기재부 2차 예산심의 대응 현안사업·주요사업 예산반영 건의

정현을 익산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강행군 속에서 내년 1조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다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예산의 핵심 간부를 찾아 지역 경제 상황과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 및 미반영, 과소 반영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2차 예산심의에서 부활의 돌파구를 마련해 국가예산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에게 'K-푸드' 중심지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순 식품제조 중심의 산업단지 아닌 산업문화·관광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식품문화 복합 혁신센터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백제왕궁 금마지 역사문화공간

조성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을 담은 사업조서를 전달했다.

또한 임기근 재정관리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 안상열 복지예산심의관 및 관련 예산과장들을 만나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연화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당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주요사업에 대해 반드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중앙광장 조성사업 착수... 전통시장 이용편의·활력제고

군산시는 지난 31일 군산공설시장 및 신명시장 옆 폐철도 유휴부지에 전통시장 이용편의 및 활력제고를 위해 '중앙광장 조성사업'을 8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만82㎡ 부지에 조성된다. 규모 10억, 도비 1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6억원을 활용해 다목적 광장, 휴게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공간활용과 납세노스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경기침체 및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정삼거리부터 추진 중에 있는 도시바람길숲과 도시재생숲을 잇는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을 통해 인근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시활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광장 조성사업'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에 지난해 7월 선정되어 최대 20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매년 약 6천만원의 부지사용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최근 송학동 상습침수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익산시, 수해 후원손길 잇따라... 일상회복 속도

시민·단체·지자체·기업 등 전국 각지서 도움 손길

익산시가 수해복구 현장의 잇따른 후원 손길에 힘입어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피해현장에 주민들과 복구에 투입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돕기 위한 후원물품이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장서 이웃들을 위로했다.

익산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생수 1,600개와 이온음료 1,600개를 전달하고 재경인보부천향우회에서는 컵라면 1066개를, 장애인정보문화협회에서는 세계 300개를 기탁했다. 적십자사에서는 캔커피 200개, 성인영양식 7,320개와 음료 3,000개를 기탁했다.

자매도시 경주시와 용산구청에서도 도움을 손길을 전달했다. 경주시는 물 1만5천개와 사탕의 박자를 지원하고, 용산구청에서는 세계 250개, 휴지 250개, 생수 1만1,200개를 기탁했다.

강북구청은 이온음료 1,920개, 물 1,920개, 빵 300개를 전북도청은 라면 1,288개, 생수 1,200개, 이온음료 1,296개, 과자 1,620개 등을 제공했다.

민간기업들의 후원도 큰 힘이 됐다. BGF 봉동센터에서는 라면 624개, 이온음료, 커피 등 1,230개, 아이스크림 600개를 비롯해 대우건설 이온음료 700개, 크라운해태제과에서 맛동산 1만개, 코스트코 대전점에서도 먹는샘물 1,960개, 휴지 150개, 라면 1,560개

를 기탁했다.

익산에 분사를 둔 하림은 삼계탕 2,500개를 전달해 복구현장에서 수해 지역 주민들과 장방들의 건강을 챙겼다. 하림산업은 간편하게 취식가능한 데미식(demi식)밥 등 구호물품 총 2,000개를 전달했다. 삼양식품은 익산 공장을 통해 라면 5,000개를 긴급지원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 현장에 땀흘리는 군장병들을 위해 KT익산법인지사에서는 수건 1,000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건 1,000장과 장갑 1,000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는 수건 1,000장과 물티슈 240개를 후원했다.

정현을 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 주신 응원이 주민들에게 큰 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세계 잼버리 연계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세계 잼버리 참가자를 위한 문화·관광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손잡고 우리시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잼버리 연계 문화관광프로그램인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과 '문화교류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은 스



카우트잼버리 주간(8.1 ~ 8.12) 전후로 진행된다. 벨기에, 폴란드, 파라과이, 몰타 등 다양한 국가의 총 1,300명의 참가자들이 익산을 방문해 오랜 역

사의 세계문화유산을 전통문화와 함께 체험한다.

오는 4일과 5일에는 인도·멕시코의 상인위원과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투어가 진행된다. 익산 대표 문화유적지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를 방문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까지 함께 맛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관광자원개발팀(063-918-9988) 또는 재단 홈페이지, 문화다양성사업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박철원 익산시의회 의원, 상습침수지역 주민간담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최근 송학동 상습침수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송학동 침수피해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지역주민들과 익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원인 및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송학동 일대가 십여 년 전부터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나 익산시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 또한 없었다"며 원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송학동 침수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병선 하수도과장은 "저지대인 송학동의 특성과 하수관로 용량 부족 등의 문제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송학동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송학동을 하수도정비 중점지역으로 특별관리하고 하수관로 확장사업 등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현장 간담회를 주최한 박철원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만큼 북부권 일대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송학동 침수 피해가 자칫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겠으나 송학동은 시내권 주거지 중에서 해마다 침수피해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라며 송학동 침수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송학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 완료까지 앞으로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하수관로 준설 작업과 함께 병목구간 확장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시가 주민들에게 향후계획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은 피해원인과 대책에 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지역주민들도 자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위생업소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군산시는 위생업소 등의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을 관련법에 의거 관련 단체별 일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생교육 대상은 시에 영업신고 및 등록된 공중위생업소 1,688개소와 노래연습장 169개소, 식품접객업소 8,367개 등 총 1만1,528개소다.

위생교육은 각 업종별로 단체에서 주관해 일정별로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위생업소는 1년에 한번씩 공중위생관리법과 음식안전업종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총 88개소로 공중 15개소, 식품 68개소가 위반했으며, 업종별로 과태료가 20~6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립도서관서 이희영 작가 '자녀와 부모' 특강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이희영 작가를 초청, '집대 자녀와 부모,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10대 청소년과 부모는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또 좋은 부모와 좋은 가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나눔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공감과 위로, 해방감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희영 작가는 지난 2013년 제1회 김승옥문학상 신인상 대상 수상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9년 '페인트'로 제1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은 책을 접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테스터', '보통의 노을', '너' 등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활동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